

'서툴지만 친숙한 청소년들의 공연'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24일 개최
포크싱어 박강수·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등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7회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로서 포크싱어 박강수씨와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탁반 '레인보우'가 함께 연주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자립거점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은 60여명의 오케스트라단 단원과 60여명의 가족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한층 더 성장된 모습으로 구성됐다.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은 그동안 갖고 있던 연주 실력을 가족, 친구, 지역민들 앞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의 공연을 시작으로 레인보우, 포크싱어 박강수씨,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부안가족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어진다. 특히 초·중·고 학생 40여명의 아리울단원과 10여 가족의 가족오케스트라 단원의 합동 공연 또한 기대된다. 공연 중에 플루트 앙상블의 전문가다운 매력과 현악 앙상블의 서툴지만 친숙한 어린이들의 공연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내년 부안아리울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에서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매개로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협동심, 배려심 등 성장시기에 중요한 요소들을 뽐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통문화의 고장 정음예술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음사국악원·농악전수회관 교수·강사·연수생 발표공연 22일 정음사예술회관에서

정음사국악원 및 정음농악전수회관 2018년 교수·강사·연수생 작품발표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정음사예술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이번 발표회는 정음사국악원과 정음농악전수회관 교수와 연수생들이 2018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간 배우고 익힌 실력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맥이 이어지고 있는 정음예술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멋진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 2월에 개관한 정음사국악원과, 2001년 3월에 개관한 정음농악전수회관에서는 정음 국악교육의 중심지로서 국악교육을 전담해 오며 이제까지 10,000여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가야금, 판소리, 무용, 대금 및 농악 분야에서 8명의 교수와 강사진이 매주 220여명의 연수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금년 4월에는 제5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판소리)에서 판소리란 정성민 군이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0월에는 12회 대한민국

국 전통예술무용 연희대전에서 남금숙씨가 무용분야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장성 황통강 노란꽃잔치 제1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남금숙의 8명이 가야금 신인단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판소리, 무용, 가야금 부문 등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대외적으로 재능을 인정받아 중요로운 한해를 보냈다. 유진섭 정음시장은 "정음 국악교육의 중심에서 시민들의 국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와 강사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악원과 전수회관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보존노력이 더해질 수 있는 국악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문체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전시프로그램 제공자 공모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혜경)는 2019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전시프로그램 제공자 공모를 실시한다. 접수는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

하여, 지역 유류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도에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시프로그램 제공자 공모 이후에는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순회전시가 가능한 전시공간 공모가 진행되며, 전시프로그램과 전시공간 매칭을 통해서도 알맞은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을 상호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매칭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시공간 공모는 2019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경 한문연 회장은 "문화예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21세기에,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제2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퓨전국악 콘서트 日就月將

22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무료공연

올해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창문화의전당 상주예술단체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의 퓨전국악 콘서트 '日就月將(일취월장)'이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은 2009년에 창단해 2015년 전라북도 지정번호 제 36호 전문예술단체 지정과 2016년 서울 TV, 서울신문 주최 제8회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대상 국악 부문 수상, 2017년 고창군 표창패 수상 등 저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젊은 국악예술 단체다.

이번 공연은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이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청소년들을 모집해 8개월여 시간동안의 교육과정을 거쳐 청소년국악단 소리너울과 함께하는 퓨전국악 콘서트로 '日就月將(일취월장)'의 실력을 보여주는 공연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판소리의 고장 고창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국악적으로 해석해 친숙한 우리 음악을 주제로 한 김지혜 학생(고창여고 3학년)의 국악 편곡 영화 OST 협연을 시작으로, 흥부가 中 화초장 대목의 '화초장(작곡 이지연)', 수궁가 中 토끼 육하는 대목의 '사지 수궁 먼먼 길'(작곡 송시준) 등 다채로운 연주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예술에 현대적 감각을 추가한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흥미를 더할 계획이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김경민 단원(청소년국악단 소리너울 파리 지도교사)은 "청소년 국악단이 비록 8개월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이었지만, 국악의 성지인 고창의 청소년들이 만큼 열정을 가지고 배움을 입혔고, 연주실력 또한 자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전석 좌석지정제로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예약과 현장 티켓 발권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개최... 남원목기의 명성 잇는다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작품 접수

남원시가 제22회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목공예대전)을 위해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목공예대전은 남원목기의 명성을 잇고, 전통기술의 계승과 옷칠 목공예품의 대중화를 이끌 작품발굴을 위해 1998년부터 개최해 왔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나무를 재료로 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옷칠 목공예부문 및 같이부름으로 나눠 분야별 단계적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고 선정된 작품 42점에 대해 총1억2천만원(대상 3천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단 같이부름은 남원목기의 원천 기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특화한 부문으로 작품출품시 제작 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은 서울 koef 갤러리 및 2019 공예트렌드 페어 등에 전시 될 예정이며, 상품성이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상금과 별도로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